착한 목자

천주교 싱가포르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fice
Blk A3-7, 98 Hougang Avenue 8, S538791

주임신부: 박재우 사도 요한
사목회장: 최 수 사도 요한

☏ 사제관: 6925-7873, 사무실: 6288-9771, 팩스: 6288-9551, http://cafe.daum.net/kccsg

주 일 미 사	주일: 오후 2시(대성전)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4시 소성당**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주일학교(토)	유초등부: 방학, 2026년 2월 개학예정 중고등부: 방학, 2026년 2월 개학예정
		예비신자교리	주일 12시 30분, 수·목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3시
평 일 미 사	시간: 화/오후 7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성당	고 해 성 사	평일: 미사 전 후 고해실(A2-8) 주일: 미사 30분 전 성전 고해소.

대림 제2주일 · 인권주일 · 사회 교리 주간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 교회가 정한 인권 주일이고 사회 교리 주간의 시작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 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분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전쟁이나 분쟁 지역, 특히 중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2월 14일(일) '자선주일'로 2차봉헌 있습니다.
12월 21일(일) 세례식 오후 1시 30분
12월 24일(수) 성탄대축일 밤미사 저녁 8시 오디토리움
12월 25일(목) 성탄대축일 낮미사 오후 2시 대성전
12월 31일(수) 송년미사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대림초 판매 안내

대림시기를 밝혀 줄 대림초($25)를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판매안내

성탄절을 맞아 중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판매합니다. 모든 수익금은 빈첸시오회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오너먼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판매일 & 장소 : 12월 14일, 21일 교중미사 후 캔틴

단체별 연말결산 정리 및 예산안 작성

분과별, 단체별로 2025년 1년동안 지출한 금액 결산해주시고, 2025년 예산안을 작성하여 **12월 2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싱가포르 착한목자 청년회 안내

우리 본당 청년회는 만 19세 ~ 35세 미혼 형제 · 자매님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고, 교우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피정, 봉사, 친교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지지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Instagram : kcs.__.youth

중 · 고등부 교사 모집 안내

저희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5시반 미사 때 오시거나 아래 아이디로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세례 받은지 1년 이상 된 청년 (20세 이상)
* 문의 : 교감 임소현 레온시아 (카톡 아이디: shyim0128)

빈첸시오회 후원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움 주신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잠언 3:27)
* 문의 : 빈첸시오 회장 이영학 시몬(9619-6683)
* 후원 계좌 : PARK JAEWOO OCBC 543289292001

인터넷 교리 안내

예비자 교리 http://school.catholic.or.kr/cte/roompass.asp
견진 교리 https://school.catholic.or.kr/3217e
※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사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제1주일(11월30일) 주일헌금 $1,646.10, ₩15,000.

교무금 내신 분 (11월 29일~12월 5일)

강희주 비비안나 12월, 권지영 프란체스카 12월, 김동훈 빈첸시오 10월, 김유리 유스티나 11월, 김원기 마카엘 9-12월, 김정환 그레고리오 10-12월, 김형석 시몬 12-26' 1월, 노일선 가브리엘 12월, 박경인 클라라 10-12월, 박상현 안드레아 12-2월, 백순건 소화데레사 11,12월, 백준 요한 9-12월, 오민경 안젤라 10,11월, 이민희 마리안나 12월, 이상은 요아킴 12월, 이영신 율리안나10-12월, 이은하 스텔라 12월, 이정륜 도로테아 10-12월, 이지윤 아녜스 12월, 전이경 아녜스 9-12월, 조길환 아우구스티노 11월, 조주현 바오로 12월.

■ 22세대 $6,580.

12/2 UOB에서 $1,800 송금해주신 분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입금 계좌 : DBS 113-008886-3 PARK JAEWOO
※ 온라인 송금할 때 입금자 이름을 꼭 기재하거나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사무실과 소성당 이용 시간

평일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1시).
토요일 : 오후 1시 ~ 8시, 주일 : 12시 ~ 5시
※주소 변경이나 귀국할 때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참례자 수(지난 주)

30(일)	평 일			
2:00	12/2(화)	3(수)	4(목)	5(금)
184	25	32	21	22

***봉헌 가족 :** 배준환 패트릭 · 김효정 패트리샤 가정

저자씨

◈제1606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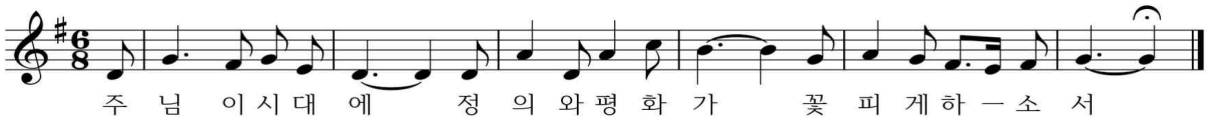
2025년 12월 7일(가해) 대림 제2주일 · 인권 주일 · 사회 교리 주간

파올로 베로네세 〈세례자 성 요한의 설교〉
1562년경, 캔버스에 유채,
로마 보르게세 미술관, 이탈리아

입 당 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 1 독 서 이사 11,1-10 <그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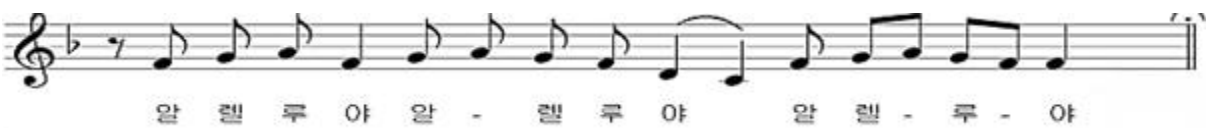
화 답 송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 2 독 서 로마 15,4-9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 음 마태 3,1-1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입당송: 95 봉헌: 211 · 513 성체: 156 · 152 파견: 93 (성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의 희망을 품고 서로를 받아들입시다!

김용주 비오 신부
가산 본당 주임 겸 서부지구 이주사목 협력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배움이 부족하여 오늘도 학교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리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고 서서, 앉아 있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피곤함에 지쳐 세상모르고 잠든 사람, 이동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는 사람, 작은 거울 하나 들고 화장하며 예쁘게 꾸미는 사람 등, 그 모습이 다양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보는 대부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정거장씩 지날 때마다 여유 있던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어깨도 점점 좁아져 옵니다. 뒤로 멨던 가방을 앞으로 돌리고, 다리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잡습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중심 잡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저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너무나 여유로운 표정으로, 마치 리듬을 타듯 중심을 잡으며 휴대폰에 집중합니다. 누군가는 마치 곡예를 하듯 사람들 사이에 끼여서도, 몸을 비틀어 손을 하늘로 들고 시선을 휴대폰에서 거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얽혀서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에만, 휴대폰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제2독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서로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고, 함께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내 곁에 있는 이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며, 지금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빈번한 요즘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효용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소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결정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방치하며 외면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 머물면서도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서로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도록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오늘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를 서로 보살펴야 함을 생각해 보는 인권 주일입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 안에서 존재의 성장을 찾는 일종의 '탈아'(脫我, ekstasis)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은 언제인가 한 번은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88항)] 오늘도 외롭게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애쓰는 고공농성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민들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자 애쓰는 가난한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껴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소공동체 모임 일정(12월 8일~12월 14일)

날짜	시간	구역/반	주소	문의
12/8(월)	12:00	2구역 2반	Ritz Carlton	이영신 율리안나

사제단상

그리스도인의 품위

프랑스 칼레시(市)는 영국과 맞닿은 도버해협 근처에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도시였습니다. 1347년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 중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하여 1년 동안 도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국에 점령당하였고, 당시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는 끈질기게 저항했던 칼레 시민들을 몰살시키려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호소와 탄원이 뒤따랐고, 결국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들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시의 명망 있는 의인 6명이 칼레시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칼레 시민 전체를 위하여 죽겠다는 의인 6명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에 밧줄을 걸고 교수대로 향합니다. 이에 큰 감동을 받은 에드워드 3세는 의인 6명과 칼레의 시민들을 모두 살려줍니다.

훗날 칼레의 시민들은 이 위대한 의인들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비적인 동상을 당대 프랑스 최고의 조각가인 오귀스트 로댕(1840~1917)에게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로댕의 작품이 <칼레의 시민들>입니다. 또한 칼레 시민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던 의인들은 훗날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 대 레오 교황님(400~461)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들의 품위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따지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신성을 입어 가장 높은 신분을 부여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성의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
은 더 많이 나누고, 봉사해야 하며,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무가 있는 품위의 사람들입니다.

한밤중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일러준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성탄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닌, 그분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느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우리는 부단히, 부단히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담화문] **제44회 인권 주일, 제15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

오늘(12월 7일)은 대림 제2주일로 제44회 '인권 주일'이며 제15회 '사회 교리 주간(12월 7일~13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인간 존엄성을 기억하며, 1982년부터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대림 제2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 (요한 4,7)

담화문 원문 보기 ▶